

# 교육불사 후원 손길 줄이어

## 호계원장 대흥사주지스님 '동참'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들도 보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는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앞두고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의 주인공은 호계원장 법등스님과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중앙종무기관 국장단 스님들이다. 호계원장 법등스님이 지난 19일 교육원장 현승스님을 만나 "종단의 승가교육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교육불사 후원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종무기관 국장단 스님들은 또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들은 지난해 11월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난 3월 일본 지진해일 피해복구 구호기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보시한데 이어 3번째 자비나눔을 실

천했다. 이와 함께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도 22일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교육불사 후원금 1500만원과 자비나눔기금 등 3500만원을 전달했다. 범각스님은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승가교육은 어떤 불사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부대중이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27일 예정된 후원의 밤에도 많은 사부대중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 日 지진피해 기금전달

### 불교TV 8000만원, 약사사 500만원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도우려는 온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교TV(사진 오른쪽)와 서울 약

사사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지진피해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불교TV는

기금으로 8000만원을, 약사사는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약사사 주지 종민스님과 총무 법상스님, 구본일 불교TV사장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큰 금액을 전달해 주셔서 고맙다"며 "심사일만으로 모은 기금은 일본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지난 20일 성남 공군15호성비행단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 일행.

## "여러분 노고에 국민들 편안"

### 총무원장스님, 공군 15비행단 격려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육군과 해군에 이어 공군부대를 방문,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장병을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성남 공군15호성비행단을 방문해 불심(佛心)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일 육군 특전사사령부, 3일 해군 인천해역방사령부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공군 15호성비행단을 잇따라 방문하며 군장병의 사기진작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육해공군을 잇따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군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포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정규 15호성비행단장의 안내로 부대를 견학하고 부대현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전술통제기 KA-1에 탑승해 활주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이륙 전 단계인 '하이 택시(Hi Taxi)'를 체험하고 C-130기 등 주요 항공기를 관람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공군 파이팅"을 외치며 공군의 건승을 기원한데 이어 단주와 금일봉을 전달했고, 우정규 15호성비행단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서는 이제 명예 공군 조종사가 됐다"며 빨간 마후라와

조종사 항공점퍼, 237비행대대 모자, KA-1모형기 등을 선물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서울은 공군이 있기에 더욱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우정규 단장은 "군 생활동안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의 부대방문으로 군장병들이 높은 사기와 용기를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부대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박인택 기자**

## 社告

### 탈북주민에게 이불을 지원합시다

(새터민)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과 안성 칠장사(주지 지강스님)가 공동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매월 250여명의 탈북주민이 정착교육을 받은 하나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니다. 민중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주 최: 안성 칠장사 · 불교신문사
- 주 관: 안성 칠장사
- 후원계좌: 농협: 351-0303-0852-33 (이불 1채 2만4000원)
- 예 금 주: 칠장사
- 연락처: (031)673-0776

불교신문사

### '사찰관리제도 개선' 세미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는 오는 27일 오후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찰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찰과 사찰사업에 대한 관리방안과 사찰사업 등록, 경내지와 창건주에 대한 개념 등 사찰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가정 사찰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종헌종법 제개정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이 발제를 한 뒤 3명의 토론자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현장에서

### "10·27위원회, 기사는 나가라"

지난 19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17차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취재를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찾았지만 위원장의 개회 선언도 전에 한 사무관이 자리에서 회의를 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취재를 허용한 지난 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날 주요 안건과 토의 결과를 취재하기 위해 담당사무관에게 연락하면서, 회의 운영규칙에 대해 문의했다. 사무관은 '모든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는 정관을 읽어주며 방침을 설명했다.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지난번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석

해 취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물었더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가졌을 때부터 통제가 안 돼 우리 식구려니 하고 묵인했다"고 말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직전 출입기사는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도 취재했기 때문이다. 실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만 남았다.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회의 자리인 만큼, 취재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번 일은 본지의 10·27법난 역사교육관 예산 축소관련 단독 보도 이후, 코너에 몰린 10·27법난피해회복지원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회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방부가 법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보도 이후 이에 대한 해명이 미흡해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회의의 공개원칙을 분명히 하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문화재정책 개선하라" 대전총남 불교계 성명

제6교구본사 마곡사를 비롯한 대전총남 지역 불교계가 충남도의 문화재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지역 불교계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도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의 반문화적인 행태들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능사에 주석하면서의 식을 집전하고 도량으로서의 위의를 살행할 스님을 모신다면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면 우대하고 일당은 2만원이라는 모집공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능사와 정밀사, 서산마애삼존불에 청정한 승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참회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 △지역 불교 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촉구했다. **염태규 기자**

불기 2555년도

#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및 3급 승가고시 대상자 소임 현황 취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5(2011)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에 대한 소임 현황 취합을 공고합니다.

### 결계신고

- 신고일: 불기2555(2011)년 5월 7일(토, 음력 4. 5) ~ 5월 17일(화, 음력 4. 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대상: 본 종 소속 모든 승려
- 신고방법

- 본 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 종 관할 하의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의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진과 법령에 따라,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불기 2554(2010).11.16 개정]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 가. 승남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중승급 이상의 스님 [불기2554(2010).11.16개정]
- 나.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라.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부 출장 중인 스님
- 마. 군 부무중인 스님
- ※ 나~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계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계특례에 응제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 (결계 및 포살에 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제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시할 수 없다.

### 2010분한신고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의 결계, 포살 참여

-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승적말소된 스님에 대하여 승려법 제5조의2 6항에 의거하여, 현재 '가 계적' 상태 인, 추후 특별한 신고시 불이익이 없도록 금번 시행하는 『불기2555(2011)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 소임현황 취합

- 대 상: 법계 건덕(계덕)이상 중덕(정덕) 품서 이전의 종단 소속스님

### 소임 취합기간: 구족계 수계 후 금년 하안거 결계일까지의 소임 현황

### 소임 증빙제출서류

- 임명장(대장)과 보시대장(금전출납부 혹은 통장 사본 등)사본 각 1부씩 함께 제출(단, 해임시 해임일자 기록된 대장 제출)
- 대중명부와 보시대장(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등) 각 1부씩 함께 제출
- 해외 파견처: 지방 총무원에서 발행한 위촉장(혹은 추천서)과 여권사본 각 1부씩 함께 제출

### 신고장소: 제적 교구본사

###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급 승가고시 대상자는 제적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교구본사는 포살일에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실천 사항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